

일부 치기공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

이주희, 황재선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Ju-Hee Lee, Jae-Sun Hwang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ongnam Health Sciences college

[Abstract]

Purpose: This study studied and investigated the oral health behavior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t D College at D City.

Methods: A self-administrated survey was conducted by students currently enrolled at th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at D College (June 4, 2015 ~ June 12, 2015), and 320 copies that were available for statistical processing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using the SPSS 19.0 Program.

Results: Among the survey respondents, 91.6% had experience of dental treatment. The highest response regarding the frequency of tooth brushing appeared to be 'twice' with 44.7%. The responses regarding the time of tooth brushing appeared to be highest for 'before sleeping' with 65.3%, which was followed by 'after breakfast' with 60.6%. To the question asking which areas are brushed during tooth brushing, the response of 'teeth, gum, and tongue' appeared to be highest with 44.4%. Among the respondents, 64.7% experienced scaling, however, the experience rate for scaling appeared to increase in proportion with the increase of class year ($p < .001$). Regarding the subjective feel for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 and necessity of tooth brushing, the scores appeared to be both 4.56. However, the score appeared to be 3.27 regarding one's subjective perception of one's own oral health condition. Regarding one's subjective oral health knowledge level depending on gender, female students showed a meaningfully lower rate (3.12 points) compared to male students (3.29 points) ($p < .05$), and depending on class, the knowledge level appeared to be meaningfully higher along with the increase in class year ($p < .001$). The experience of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appeared to be 78.4%, and 88.8%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re is need for oral health education, however, the intent to participate in an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appeared to be 56.6%.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ould be concluded that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s and awareness of the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at D University to prevent oral diseases were rather poor.

○**Key words** :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awareness, Tooth brushing, Oral health education,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교신저자	성명	이 주 희	전화	010-6216-9760	E-mail	jhlee@hit.ac.kr	
	주소	대전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 6216호					
접수일	2015. 7. 31		수정일	2015. 8. 31		확정일	2015. 9. 7

I. 서론

구강건강이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육체의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권현숙 등, 2003). 치과기공은 상실된 구강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대체물로 구강의 기능을 수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치과보철을 제작하는 업무이다. 치과기공을 배우는 치과공과 학생은 구강보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예비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구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해야 하므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본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의 구강보건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재승 등, 2004).

구강보건행태는 구강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구강보건태도와 구강보건행위로 나뉜다. 그러므로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는 구강보건태도에 관한 연구와 구강보건행위에 관한 연구로 세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구강보건태도에 관한 연구는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인식이라는 주제 하에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구강보건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구강건강관련행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한다(이재승 등, 2004). 구강보건 행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거나 또는 비슷한데, 이는 사회, 경제, 문화, 심리적 상태 등 여러 환경이 개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은 곧 개개인의 구강보건행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강보건행태는 개인적 차원이나 집단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유사한 환경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유사한 구강보건행태를 형성하게 된다(이재승 등, 2004; 김정순 등, 1994). 그러므로 집단적 차원의 구강보건교육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구강건강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나 신념이 선행되어야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김영임, 2008). 대학생 시기는 구강병의 예방이 가능한 시기이고 구강건강관리에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적인 중요성도 있으므로 구강보건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게 우선시 되어야 할 연구라고 할 수 있다(지민경, 2007).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 분석은 꾸준히 되어 왔으나 구강건강 관련 전문가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치과공과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과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행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현재 상태를 개선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15년 D시 지역 D대학의 치과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350부를 직접 배포하여 이 중 327부를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으며, 미응답 등 통계처리에 부적합한 7부를 제외하고 320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6월 4일 부터 2015년 6월 12일 까지였다.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도구

설문 문항 구성은 김영임(2008), 이민영과 유자혜(2008)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5문항으로 일반적 사항 5문항, 구강보건행태의 구강보건행위 10문항, 구강보건인식(구강보건교육 포함) 10문항(5점척도, 1점~5점까지 점수가 클수록 인식문항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행위는 치과진료 경험, 치과진료 과목, 잇솔질 횟수·시간·시기·방법·부위, 사용하는 구강보조 위생용품, 잇솔 교환주기, 스케일링 경험, 구강보건교육 경험·장소·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조사하였다. 구강보건인식은 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 보건지식 수준, 구강건강의 중요도, 구강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잇솔질·스케일링·구강보건교

육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치과기공사의 일반적 사항, 구강건강관리 행위는 빈도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행위는 피어슨의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에 관한 인식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4.7%, 여성이 45.3%였고, 학년분포는 1학년이 33.8%로 가장 많고, 4학년(전공심화 학생으로 치기공과를 졸업하고 현업에 종사하며 전공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20)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75	(54.7)
	Female	145	(45.3)
Year	1	108	(33.8)
	2	104	(32.5)
	3	86	(26.9)
	4 (Intensive major course)	22	(6.8)
Age	19-22	175	(54.7)
	23-26	114	(35.6)
	27≤	31	(9.7)
Housing type	House/Relative's home	140	(43.8)
	Rented room, Boarding house/Dormitory	179	(55.9)
	Etc	1	(.3)
	None	192	(60.0)
Number of dental caries	1-3	78	(24.4)
	4-6	36	(11.3)
	7≤	14	(4.4)
	Total	320	(100.0)

는 단계)이 6.9%로 가장 적었다. 나이는 19-22세가 54.7%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자취, 하숙, 기숙사 등 보호자와 동거하지 않는 형태가 55.9%, 자택이나 친척집이 43.8%였다. 구강 내 치과보철 개수는 '없음'이 60.0%로 가장 많았고, '7개이상'도 4.4%였다.

2. 구강보건 행위

1) 구강보건 행위

구강보건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Table 2>와 같다. 치과진료 경험은 '있다'가 91.6%였다. 잇솔질 횟수는 '2회'가 44.7%로 가장 많았고, '3회'가 43.4%였다. 그러나 '1회'도 2.2%였다. 잇솔질 시기는 '잠자기 전'이 65.3%, '아침 식 후'가 60.6%, 그 다음이 '저녁 식 후' 51.4%였다. '간식 후'는 8.8%만이 잇솔질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잇솔질 시간은 '2분 이내'가 45.6%로 가장 많았고, '3분 이내'가 40.6%, '1분 이내'도 4.7%였다. 잇솔질 방법에서는 '위아래 등글게 회전'이 79.7%로 가장 많았고, '옆으로 직선적'이 15.9%였다. 잇솔질 부위는 '치아, 잇몸, 혀'를 닦는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고, '치아, 혀'를 닦는 경우가 40.6%였다. '치아'만 닦는 경우도 4.7%였다. 스케일링은 64.7%가 경험이 있었다.

2) 성별 · 학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행위

성별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 행위를 보면 <Table 2>와 같다. '치과 진료경험'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유의하게 많았다(p<.05). 잇솔질 시기에서는 '아침 식 전', '점심 식 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p<.05). 잇솔질 방향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위아래 회전'이 유의하게 많았다(p<.01). 잇솔질 횟수 · 시간 · 부위, 스케일링 경험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Table 2>와 같이 잇솔질 시기의 '아침 식 전'에서는 4학년 전공심화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았고(p<.01), '아침 식 후'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높았고(p<.05), '점심 식 후'에서도 유의하게 4학년 전공심화 학생들이 많았다(p<.01). 잇솔질 하는 부위는 1,2학년의 경우에는 '치아, 혀'가 많았고, 3학년과 전공심화 학생들은 '치아, 잇몸, 혀'가 유의하게 많았다(p<.001). 스케일링 경험

에서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스케일링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01$). 치과 진료경험, 잇솔질 횟수, 시간, 방법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Oral health behavior per gender and grade

(N=320)

Factor	Gender		Grade				Total	
	Male 175(%)	Female 145(%)	1 108(%)	2 104(%)	3 86(%)	4 22(%)		
Dental care experience	Yes	155(88.6)	138(95.2)	98(90.7)	94(90.4)	79(91.9)	22(100.0)	293(91.6)
	No	20(11.4)	7(4.8)	10(9.3)	10(9.6)	7(8.1)	0(0)	27(8.4)
	p	.034*		0.509				
Number of daily teeth brushing	1	7(4.0)	0(0)	5(4.6)	1(1.0)	1(1.2)	0(0)	7(2.2)
	2	76(43.4)	67(46.2)	45(41.7)	54(51.9)	36(41.9)	8(36.4)	143(44.7)
	3	76(43.4)	63(43.4)	49(45.4)	39(37.5)	42(48.8)	9(40.9)	139(43.4)
	4≤	16(9.1)	14(10.3)	9(8.3)	10(9.6)	7(8.1)	5(22.7)	31(9.7)
	p	.109		.196				
Before breakfast	Yes	63(36.0)	72(49.7)	34(31.5)	42(40.4)	43(50.0)	16(72.7)	135(42.2)
	No	112(64.0)	73(50.3)	74(38.5)	62(59.6)	43(50.0)	6(27.3)	185(57.8)
	p	0.014*		.001**				
After breakfast	Yes	105(60.0)	89(61.4)	73(67.6)	66(63.5)	48(55.8)	7(31.8)	194(60.6)
	No	70(40.0)	56(38.6)	35(32.4)	38(36.5)	38(44.2)	15(68.2)	126(39.4)
	p	.802		.012*				
After lunch	Yes	95(54.3)	61(42.1)	47(43.5)	47(45.2)	44(51.2)	18(81.8)	156(48.8)
	No	80(45.7)	84(57.9)	61(56.5)	57(54.8)	42(48.8)	4(18.2)	164(51.3)
	p	.030*		.009**				
After dinner	Yes	88(50.3)	77(53.1)	60(55.6)	49(47.1)	47(54.7)	9(40.9)	165(51.6)
	No	87(49.7)	68(46.9)	48(44.4)	55(52.9)	39(45.3)	13(59.1)	155(48.4)
	p	.616		.417				
Before sleeping	Yes	112(64.0)	97(66.9)	67(62.0)	74(71.2)	52(60.5)	16(72.7)	209(65.3)
	No	63(36.0)	48(33.1)	41(38.0)	30(28.8)	34(39.5)	6(27.3)	111(34.7)
	p	.588		.320				
After snacks	Yes	14(8.0)	14(9.7)	13(12.0)	9(8.7)	4(4.7)	2(9.1)	28(8.8)
	No	161(92.0)	131(90.3)	95(88.0)	95(91.3)	82(95.3)	20(90.9)	292(91.3)
	p	.602		.351				
brushing time	< 1min.	7(4.0)	8(5.5)	8(7.4)	3(2.9)	3(3.5)	1(4.5)	15(4.7)
	< 2min.	82(46.9)	64(44.1)	46(42.6)	53(51.0)	35(40.7)	12(54.5)	146(45.6)
	< 3min.	68(38.9)	62(42.8)	41(38.0)	39(37.5)	43(50.0)	7(31.8)	130(40.6)
	4min.≤	18(10.3)	11(7.6)	13(12.0)	9(8.7)	5(5.8)	2(9.1)	29(9.1)
	p	.693		.420				
Tooth brushing method	Rotate in a vertical direction	130(74.3)	125(86.2)	81(75.0)	84(80.8)	73(84.9)	17(77.3)	255(79.7)
	straightly in a horizontal direction	32(18.3)	19(13.1)	21(19.4)	19(18.3)	9(10.5)	2(9.1)	51(15.9)
	Etc	13(7.4)	1(7)	6(5.6)	1(1.0)	4(4.7)	3(13.6)	14(4.4)
	p	.004**		.074*				

Factor	Gender		Grade				Total	
	Male	Female	1	2	3	4		
	175(%)	145(%)	108(%)	104(%)	86(%)	22(%)		
Teeth brusing area	Teeth	10(5.7)	5(3.4)	5(4.6)	5(4.8)	4(4.7)	1(4.5)	15(4.7)
	Teeth, gum	18(10.3)	6(4.1)	2(1.9)	(3.8)	15(17.4)	3(13.6)	24(7.5)
	Teeth, Tongue	71(40.6)	59(40.7)	61(56.5)	46(44.2)	18(20.9)	5(22.7)	130(40.6)
	Teeth, Tongue, gum	72(41.1)	70(48.3)	35(32.4)	47(45.2)	47(54.7)	13(59.1)	142(44.4)
	Irregularity	4(2.3)	5(3.4)	5(4.6)	2(1.9)	2(2.3)	0(0)	9(2.8)
p	.188		.000***					
Scaling experience	Yes	109(62.3)	98(67.6)	52(48.1)	67(64.4)	67(77.9)	21(95.5)	207(64.7)
	No	66(37.7)	47(32.4)	56(51.9)	37(35.6)	19(22.1)	1(4.5)	113(35.3)
	p	.323		.000***				

*p< 0.05, **p< 0.01, ***p< 0.001

치과진료에 대한 목적으로는 <Table 3>과 같이 충치치료가 59.1%로 가장 많았고, 치과보철 25.6%, 구강예방관리가 25.0% 순이었다. 사용하는 구강위생 보조용품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이 41.6%로 가장 많았고, 사용하는 용

품 중에는 '구강 세정액'이 25.3%로 가장 많았고, '치실'이 22.2%, '치간 칫솔' 13.1%, '혀 클리너'가 11.6% 였다. 칫솔 교환주기는 '3개월'이 40.6%로 가장 많았고, '2개월'이 31.6%, '1개월'이 16.6% 순이었다.

Table 3. Objective of dental treatment · Oral health supplementary goods · Toothbrush replacement cycle

(N=320)

Factor	N	%	
Objective of dental treatment (duplicate responses)	Cavity treatment	189	59.1
	Periodontal disease	8	2.5
	Prosthetic consideration	82	25.6
	Orthodontics	55	17.2
	Dental bleaching	7	2.2
	Oral disease prevention management (regular checkup, scaling)	80	25.0
	Etc.	8	2.5
Oral health supplementary goods under use (duplicate responses)	Dental Floss	71	22.2
	Oral cleaning fluid	81	25.3
	Interdental brush	42	13.1
	Tongue cleaner	37	11.6
	Water-pick	7	2.2
	toothpick	31	9.7
	Fluorine-containing supplementary goods	6	1.9
None	133	41.6	
Toothbrush replacement cycle	1 month	53	16.6
	2 month	101	31.6
	3 month	130	40.6
	4 month	20	6.3
	5 month ≤	16	5.0

3. 구강보건에 관한 인식

1) 성별에 따른 구강보건 인식 차이

〈Table 4〉와 같이 구강보건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5점 척도(5점 만점) 문항에서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의 중요도, 잇솔질의 필요성에서 모두 4.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

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본인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에서 여학생이 3.12점으로 남학생 3.29점 보다 유의하게 낮았고($p < .05$), 스케일링의 필요성에서는 여학생이 4.00점으로 남학생 3.59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Table 4. Difference in oral health awareness depending on gender

(N=320)

Factor	Gender	N	M±SD	t	p
One's subjective perception on one's own oral health condition	Male	175	3.34±.969	1.578	.115
	Female	145	3.18±.863		
	Total	320	3.27±.925		
One's subjective oral health knowledge level	Male	175	3.29±.801	2.061	.040*
	Female	145	3.12±.600		
	Total	320	3.21±.720		
One's subjective evaluation of importance level of oral health	Male	175	4.52±.764	-1.162	.246
	Female	145	4.61±.679		
	Total	320	4.56±.727		
Experience of stress due to dental treatment	Male	175	2.95±1.076	.080	.937
	Female	145	2.94±1.033		
	Total	320	2.95±1.055		
Necessity of tooth brushing	Male	175	4.53±.668	-.902	.368
	Female	145	4.59±.661		
	Total	320	4.56±.665		
Necessity of scaling	Male	175	3.59±.954	-4.003	.000*
	Female	145	4.00±.882		
	Total	320	3.77±.943		

* $p < 0.05$, *** $p < 0.001$

2)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차이

〈Table 5〉와 같이 주관적 본인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치과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은 3학년이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4학년이 3.14점, 1학년 2.90점, 2학년 2.70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스케일링의 필요성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케일링의 필요성이 유의하게 높은 정도를 보였다($p < .01$).

Table 5. Oral health education depending on gender and grade

(N=320)

Factor	Gender	N	M±SD	F	p
One's subjective perception on one's own oral health condition	1	108	3.23±1.001	.167	.918
	2	104	3.32±.948		
	3	86	3.27±.846		
	4	22	3.23±.752		
	Total	320	3.27±.925		
One's subjective oral health knowledge level	1	108	3.01±.663	9.294	.000***
	2	104	3.14±.689		
	3	86	3.44±.729		
	4	22	3.64±.727		
	Total	320	3.21±.720		
One's subjective evaluation of importance level of oral health	1	108	4.52±.730	2.405	.067
	2	104	4.65±.650		
	3	86	4.44±.835		
	4	22	4.82±.501		
	Total	320	4.56±.727		
Experience of stress due to dental treatment	1	108	2.90±1.076	5.008	.002**
	2	104	2.70±1.023		
	3	86	3.27±1.022		
	4	22	3.14±.941		
	Total	320	2.95±1.055		
Necessity of tooth brushing	1	108	4.56±.600	.660	.577
	2	104	4.51±.710		
	3	86	4.56±.713		
	4	22	4.73±.550		
	Total	320	4.56±.665		
Necessity of scaling	1	108	3.53±.952	5.230	.002**
	2	104	3.88±.867		
	3	86	3.84±.992		
	4	22	4.27±.767		
	Total	320	3.78±.943		

p< 0.01, *p< 0.001

4.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은 <Table 6>과 같다. 구강보건 교육을 받은 경험이 78.4%였고, 구강보건의 필요성은 8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할 의사는 56.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구강보건 교육 관련 문항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구강보건교육경험에서 전공심화 학생들이 100%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3학년

87.2%, 1학년 78.7%, 2학년 66.3%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보건교육의 필요성에서도 전공심화 학생들이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3학년

95.3%, 1학년 86.1%, 2학년 83.7%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Table 6. Oral health education depending on gender and grade

(N=320)

Factor		Gender		Grade				Total
		Male	Female	1	2	3	4	
		175명(%)	145명(%)	108명(%)	104명(%)	86명(%)	22명(%)	
Experience of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Yes	144(82.3)	107(73.8)	85(78.7)	69(66.3)	75(87.2)	22(100.0)	251(78.4)
	No	31(17.7)	38(26.2)	23(21.3)	35(33.7)	11(12.8)	0(0)	69(21.6)
	p	.076		.000***				
Necessity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52(86.9)	132(91.0)	93(86.1)	87(83.7)	82(95.3)	22(100.0)	284(88.8)
	No	23(13.1)	13(9.0)	15(13.9)	17(16.3)	4(4.7)	0(0)	36(11.3)
	p	.288		.019*				
Intent to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Yes	95(54.3)	86(59.3)	67(62.0)	52(50.0)	45(52.3)	17(77.3)	181(56.6)
	No	80(45.7)	59(40.7)	41(46.9)	52(50.0)	41(47.7)	5(22.7)	139(43.4)
	p	.428		.055				

* $p < 0.05$, *** $p < 0.001$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장소는 중·고등학교가 30.0%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가 25.6%, 초등학교가 20.0% 순 이었다(Table 7).

Table 7. Place of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Factor	N	N / 320%	
Place of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duplicate responses)	Elementary school	64	20.0
	Middle · High School	96	30.0
	A college	82	25.6
	dental clinic · hospital	42	13.1
	Public health center	13	4.1
	Etc.	12	3.8

IV. 고찰

구강건강관리 행태 중 잇솔질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1일 잇솔질 횟수는 '2회'가 44.7%로 가장 많았는데, 이민영과 유자혜(2008), 김영임(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3회'가 가장 많은 결과도 많았는데, 지민경(2007)은 57.3%, 노세인(2009)

은 44.4%,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선희와 박일순(2011)은 62.5%, 이정화와 조미숙(2012)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회'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성인의 잇솔질 평균 횟수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성인의 잇솔질 평균 횟수는 2000년도에 2.37회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2.39회로 0.84% 증가하였다. 2006년에 우리나라 성인

중 하루 잇솔질을 전체평균 이하로 적게 하는 집단은 남성과 50대 이후의 성인, 저학력 집단, 기능공 및 기계조직원, 농·축·어업 종사자 및 군인, 그리고 자신의 구강건강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는 집단이었다(문소정 등, 2009). 군인의 구강건강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육군은 대부분 하루에 두 번 잇솔질을 하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하루에 세 번 잇솔질을 하였다(정화영 등, 2007). 잇솔질 시기는 ‘잡자기 전’이 65.3%, ‘아침식 후’가 60.6%로 가장 높았다. 김영임(2008), 정수하(2006)의 연구에서도 경향은 비슷하였으나 ‘아침식 후’가 각각 72.6%, 71.5%, ‘잡자기 전’이 63.6%, 69.0%로 본 연구보다 이행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잇솔질 시간은 ‘2분 이내’가 45.6%로 가장 많았는데, 이정화와 조미숙(2012)의 근로자대상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으나 구강보건교육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잇솔질 시간 3분에는 미치지 못했다. 잇솔질 권장시간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잇솔질 방법은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잇솔질에 대한 교육은 잇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습관화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민영과 유자혜, 2008).

김영임(2008)의 연구에서 잇솔질만으로 구강건강관리가 부족한 부위는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이 권장되며, 56.1%가 구강용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다. 사용하는 용품 중에는 구강세정액이 25.3%로 가장 많았는데, 김종배 등(2000)은 가장 많이 권장되고 있는 것은 치실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보조구강위생용품은 자신의 구강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할 때 효과적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민영과 유자혜 2008; 김영임 2008).

구강진료 경험은 91.6%로 청년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라 사료된다. 치과 진료목적에서는 ‘충치치료’가 51.9%로 가장 많아 김영임(2008)의 연구와 일치했다. 그러나 현재 구강내 치과보철이 없는 경우가 60.0%로 앞으로 구강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실천한다면 양호한 구강건

강을 유지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구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구강병에 비교적 노출이 적으며, 정기적인 관리로 인하여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이정화와 조미숙, 2012). 대부분은 학교에서 주관적 구강보건지식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김영임(2008)과 같은 경향이였다.

본 연구에서 치기공과 학생들의 구강건강 중요도는 5점 척도(5점만점)에서 4.56점을 보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3.27/5.0점을 보였다. 이는 이재승과 이흥수(2004), 정수하(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스스로 구강건강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의 관리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인 자신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은 3.21/5.0점이었는데, 이재승과 이흥수(200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90%이상은 구강건강이 중요한 건강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비율이 약 74%에 이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였다(김영임, 2008).

한경혜와 김진희(2003), 김영임(2008)의 연구에서 주관적 본인의 구강 건강상태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본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78.4%가 경험이 있었다. 이는 노세인의 연구 63.3%보다 많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미선 등(2009)의 57.7%, 이가령과 김지영(2005), 김설희 등(2007), 장경애(2008)의 연구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결국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높은 수준이나 구강관리 행태가 미흡하다는 점은 앞으로 치기공과 학생의 구강보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은 88.8%였다. 그러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는 56.6%로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참여할 의사는 낮은 구강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D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의 구강병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 관리 행동 및 인식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치기공과 학생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더욱 구강건강 관리에 민감해야 하는 직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학 교육과정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3년~4년 내

에 구강보건학을 이수하지만 필요하다면 교과외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구강보건 행위가 습관화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변수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D시에 위치한 D대학교의 치기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치기공과 학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향후 구강보건 행태에 대한 전국의 치기공과 학생들의 전수 조사를 통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D시 D대학교 치기공과 학생들의 구강보건 행태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였다. D대학 치기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5.6.4~015.6.12) 통계처리 가능한 320부를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1. 치과진료경험은 91.6%가 있었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유의하게 많았다($p < .05$).

2. 구강보건 행위에서 하루 잇솔질 횟수는 '2회'가 44.7%로 가장 많았다. 잇솔질 시기는 '잠자기 전' 65.3%, '아침 식 후'가 60.6%순으로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아침 식 전', '점심 식 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5$). 잇솔질 시간은 '2분 이내'가 45.6%로 가장 많았다. 잇솔질 하는 부위는 '치아, 잇몸, 혀'를 닦는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고, 학년에 따라 1, 2학년에 비해 3학년과 4학년 전공심화 학생들은 '치아, 잇몸, 혀'를 닦는 경우가 유의한 차이로 많았다($p < .001$). 스케일링은 64.7%가 경험이 있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케일링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01$).

3. 구강보건에 관한 인식에서는 주관적인 구강건강의 중요도, 잇솔질의 필요성에서 모두 4.56점을 보였다. 그

러나 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3.27점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라 주관적 본인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에서는 여학생이(3.12점) 남학생(3.29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p < .05$),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스케일링의 필요성에서는 여학생이(4.0점) 남학생(3.5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 .001$),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다($p < .01$).

4. 구강보건 교육은 받은 경험은 78.4%였고, 구강보건의 필요성은 8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는 56.6%로 나타났다.

REFERENCES

- Gwon HS, Lee SS, Lee MO and others. Oral Health Education. Cheonggu Munhwasa, 16, 2003.
- Han GH, Kim JH. Gender Difference in the Interaction with Family and Work.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7(3), 57-83, 2003.
- Jang KA. A study on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education for a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Busan, Gyeongnam province. Dental Hygiene Education, 8(1), 107-118, 2008.
- Jeoung SH. Health Colleg Students' Dental Health Behaviors, masters thesis of Wonkwang University. 22, 2006.
- Ji MG. An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tatus of oral health care and perceptions of oral health among the under graduates of Scollege of education in Cheongju-si.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7(4), 569-582, 2007.
- Jung HY, Jung MA. A Study on the State of Oral Health Care among Military Men: the cade of the army and the navy. J Korean Soc. Hygienic Sciences, 13(1), 43-59, 2007.

- Kim JB, Choi Yu jin, Mun Hyeok su and 7 others. Clinical Public Health Dentistry. Gomunsa, 85-159, 2000.
- Kim JS, Kim CJ, Mun OR and 8 others. General Health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 67-60. 1994.
- Kim SH, Ku IY, Heo HY, Park IS. A study on the awareness of oral health education for senior high schools. Dental Hygiene Education, 7(2), 105-113, 2007.
- Kim YI. A study on the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dental health behavior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8(1), 23-35, 2008.
- Lee GR, Kim JY.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oral health care: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city.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5(1), 53-62, 2005.
- Lee JS, Lee HS. The Oral Health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Dent Health, 28(3), 331-346, 2004.
- Lee JH, Cho MS. A Study of Oral Health Care Pattern of the Industrial Work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2), 15-23, 2012.
- Lee MY, Yoo JH. A Study on the Oral Health and Oral-Health Care of Some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8(4), 141-151, 2008.
- Lee SH, Park IS. A Study on the Use of Oral Health Care Devices and the Oral Hygiene in some Colleg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s cooperation Society, 12(6), 2629-2635, 2011.
- Mun SJ, Chung WG, Kim NH. Changes in daily tooth brushing frequency among Korean adults from 2000 to 2006. J Korean Acad Dent Health, 33(2), 183-191, 2009.
- Roh SI. Recognition for the health of the mouth and behaviors on som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of Daegu Haany University, 6,40, 2009.
- Yu MS, Goo KM, Kim YJ. A study on the oral health recognition and oral health education for ma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9(2), 89-98, 2009.